



청소년과의
아름다운 **동행**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소식지

2017년 하반기
Vol.12



마음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들의 맑은 노력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Catholic Children & Youth Foundation



2017 학반기 VOL.12

발행일	2017. 11. 00
발행인	장신설
발행처	(제) 아름다운청소년재단 (22557) 인천광역시 동구 미운로 1 천주교 인천교구 기독교청소년센터 소총
대표전화	032)766-1318, 1358
후원전화	032)766-7942
홈페이지	www.yism.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caysm
이메일	youth@yism.or.kr
제작	2017. 10. 31.

27 Contents

- 03 인사말
인천광역시청소년자활작업장 소장 송준희 신부
- 04 맑은뉴스
재단사무처 및 산하시설 주요 소식
- 10 기획기사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 12 이憎人
김주영 후원회원 인터뷰
- 14 후원가이드
후원신청 및 기부금명수증 발급 안내
- 15 결산보고
후원금 사용 안내
- 16 후원회원 명단
청소년과의 아름다운 동행



“청소년의 실수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청소년자활작업장의 송준희 베드로 신부입니다.

늦가을인 이맘때면 어느곳에서 활 바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가을을 다 가져다놓으시라면.. 나뭇잎도 책동옷을 입혀야하고, 지구의 온도조절기도 조금 낮춰야하고, 하늘은 하루에 한 번씩 물어 물려놓아야하고, 사람들은 가슴마다 잊었던 추억을 되새겨 놔야겠네요. 그 안에 자기에게 맞는 웃을 길어가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도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때가 되면 연행가는 자신만의 춤풀한 삶을 살아갈 우리의 청소년들.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의 운영기관인 인천광역시청소년자활작업장은 풀 가을 11월 7일에 이사장마신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님의 집전으로 청소년을 위한 신규 사업인 “Wish & Dream”(스팀세치) 사업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자활작업장은 2010년에 설립되어 취업 취학비용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확립과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기관입니다. 현재 커피를 통해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바리스타 프로그램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고, 제2의 사업으로 “Wish & Dream”(스팀세치)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뒤로 시작은 아니었지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응원과 기도가 많은 힘이 되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때론 환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활작업장 안에서는 청소년들의 성공만이 아닌 성장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아닐지라도 느리게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수 = 권리’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에서 느낀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엘리베이터 문 닫히기를 기다리는 3초,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 살처가 난는 시간, 수학시간에 돌아가는 시계바늘.. 그리고 나 자신을 미는 데 걸리는 시간.

가상세계들이 원하는 속도로 성장하지 못할 뿐 성장을 멈추거나 포기 하지 않습니다. 느리게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놀 용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불성명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후원회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작은 가능성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7. 11.
인천광역시청소년자활작업장 소장
송준희 베드로 신부



재단사무처·연구소 주요소식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후원님들의 정성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2017년 '꿈과 사람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파견



재단이 마련한 '꿈과 빛 세계 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 17명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9박 10일간 필리핀 바기오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필리핀청소년들과 함께 바기오의 아동보육시설 내 - 외부 도서작업, 센터 아동과 함께하는 미니운동회, 손씻기 위생교육 및 비누 만들기 체험활동, 음식교류, 문화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봉사는 다른 이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의 성장에도 대단히 좋은 기회라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전체직원교육 실시



9월 12일, 14일, 20일 3회로 나누어 전체직원교육을 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랑과 책임 연구소' 소장이신 이광호 교수님의 '미디어리터러시를 활용한 성인지 교육' 이었습니다. 청소년을 만나는 치도자들이 미디어가 성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미디어리터러시를 통해 비판적 인 시각과 식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청소년의 용어를 성인지 교육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1월말 현재 재단에 속한 직원은 모두 187명입니다.



20년사 '새로운 20년을 여는 스무살 yism 이야기' 발간

우리 재단은 설립 20주년을 지나면서 지난 우리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20년을 잘 열어가기 위해 재단 20년사 '새로운 20년을 여는 스무살 year 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20년사는 지난 20년의 재단의 운영시설의 역사를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20년을 위해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다시 짚었고, 이 소명을 살아갈 우리들의 핵심기초와 행동규범을 선정하고 다짐하는 모든 과정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나갈 역사 안에서 이 '20년사'가 아동 청소년을 향한 우리의 맑은 노력에 대한 약속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재단사무처·연구소 주요소식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후원님들의 정성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청소년전례밴드축제' 및 '꿈틀창터' 체험부스 운영

재단 서포터즈는 8월 19일 '인천구청 청소년 전례 밴드축제'가 가톨릭청소년센터 3층 대강당, 10월 14일 '꿈틀장는데승' 대종이 공원에 참여하여 출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재단과 서포터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출보와 더불어 다양한 게임들을 준비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후원회원 모집 미사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부천의 '성장동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절연되었습니다. 미사는 재단 소속 신부님들께서 집전해주셨으며 이 시내 청소년들의 성령과 이해 대중하는 재단의 역할을 알리드려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미사를 통해 청소년과의 어려다운 동행에 함께 하게 된 후원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3회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전 '말음' 개최

대학생들의 다양하고 기발한 청소년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동시에 재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사업에 접목시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이어지리고자 제3회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전 '말음'을 개최하였습니다. '20대 위기청소년의 자립의지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두 팀이 선발되었습니다. 입선에는 소송(박희원, 이정주), '오즈의 마법사나를 위한 여행', 우수상에는 원어우리(최현선, 김민지, 이나윤, 정수민, 최서윤), CIS(Credit Improve Selected)'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우리 재단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도록, 또 학생한 아이디어로 활동가들이 자극을 받도록 앞으로도 글모전 '말음'은 계속 개최될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10주년 기념 토론회 '몽일(夢-Share, 꿈을 나누다)' 개최

12월 10일 사무처 매티에서 재단 청소년운영위원회 10주년을 기념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재단에게 바라는夢'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 자유개시판 개설 및 전시 내 청소년공간 마련 등 청소년들의 의견을 통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재단 대표 자치기구로서의 자금성을 고취시키며, 재단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서로 터치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영기관 주요소식]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후원님들의 정성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_청소년 스스로지킴이(YP) 포스터와 UCC 공모전 시상

11월 24일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유해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차라리는 건강한 문화 형성을 위하여 개최되었던 「나를 알고, 나를 지키는 청소년 스스로지킴이(YP) 포스터·UCC 공모전」의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 15편, UCC 13편 총 28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최우수 1편, 우수 3편, 장려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심포지엄

11월 2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이 확대와 친화적인 학교 밖 청소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학업중단예방센터 윤철경 센터장의 강연, 연구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인천광역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 협력 중사자 등 7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개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_‘개인구 청소년 행복지킴이’ 아웃리치 활동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17년 개인구 활성화학습만화방」 행사와 연계하여 체험부스운영 및 1388청소년전화 응보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YCC 대학생상담동아리가 참가하여 간편 심리검사 및 타투스티커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개인구 또래상담연합회 또래상담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1388청소년전화를 홍보하였습니다.



개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_내 마음을 글로 물들이다 '수채캘리그라피'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희망일마다 학교 밖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프로그램 「수채캘리그라피나그리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작성됨에, 학업 및 사회진입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건전한 여가생활 팁색을 위해 기획·운영 되었고, 두 차례의 작품전시회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_3~4차 청소년마을축제 '꿈틀장터'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연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와 공동주관으로 9월 9일, 10월 14일 연수구 송안 공원과 송도 해변이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만드는 마을축제 「꿈틀장터」를 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464명(9%), 1,124명(10%)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운영기관 주요소식]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후원님들의 정성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안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_스트레스 박! 문화체험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11명이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북 단양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경첨고사를 빙거나, 내년 음시를 위해 선택을 이용 중인 청소년들은 자연휴양림 휴식, 스키아워크와 칠기안 세럼, 단양 8경 및 야구아리랑 관람, 농촌체험마을 방문하는 등 여러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또래들과 친밀감을 더 쌓을 수 있었고,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좋았다는 친구들은 내년에도 어떤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_학교폭력예방 거리캠페인

8월 26일 종구청 일대에서 학교폭력예방 거리캠페인 「엄추세인 학교폭력, 함께 해고 친구사랑」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종구지역 모래상남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인화 1388을 통보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종구청소년센터_학업중단예방캠프 'Here & Now' (바로 지금 여기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관내 학업중단위기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인천 김파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에서 학업중단예방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이가는 주제적인 살피 테도와 나에게 주어진 현재가 바로 「선물」 이 될 수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눌 줄 아는 청소년으로서 학업에 복귀할 동기를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천어린이청소년방지센터_거리청소년 발굴 사업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밀집지역을 찾아 「거리청소년 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이웃리치 활동을 세계화하고 위기 가출 청소년을 찾아다니며 보호와 위기개입 및 기관 연계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총 500명의 청소년들과 접촉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흥시어린이청소년센터_기관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 완료

3월부터 9월까지 센터의 4, 5층 확장공사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사설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위기청소년의 노호가 가능하였습니다.



[운영기관 주요소식]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후원님들의 정성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원의 호수는별_해변거리상담 'all-night all-right'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7박 8일간 재단 내 7개의 운영기관이 청소년들을 구축하며 10번의 해변거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청소년들의 해수욕장을 찾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거리상담, 응급지원 서비스, 해변위험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안전과 성장을 도왔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원자원봉사단_2017년 청소년쉼터 주간행사-여성가족부 장관포장 수상

지난 5년간 평균 연인원 6,400명 이상, 일평균 23명 이상을 보호하고 지난해 청소년쉼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던 공적을 인정받아 10월 27일에 열린 '2017년 청소년쉼터 주간' 행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포장을 받았습니다. 심리에는 앞으로도 절 높은 사례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보호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인천남자중학교청소년방역방역부_학업유지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진행

6월 3일부터 시작하여 10월 21일까지 별마루 프로그램실에서 하나네 도서관의 자원으로 학업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책은 물론 영화와 시, 캐리커처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여 학업 및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단_주거(월세)지원사업 결과보고회

7월 17일 가톨릭청소년센터 2층에서 '주거(월세)지원사업 결과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거(월세)지원사업은 현실적인 준비없이 세상으로 끌리는 만 18~24세 위기청소년의 현실적인 차입지원안정원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관리를 통한 차립는의정성을 위하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2014년부터 3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총 39명의 위기 청소년들이 주거(월세)지원사업을 통하여 월세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비율은 27%에서 49%로 향상했고 월급이며 130만원 이상 비율은 27%에서 35%로 늘어났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률을 통해 3년 간의 사업성과를 볼 수 있었으며 추가 지원 마련을 통해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자활작업장_스팀세차(wash&dream) 축복식

11월 7일 오전 2시 재단의 이사장이신 정신형 주교님의 주례로 재단 산하시설 내 기관장 및 직원, 교구원 신부님들과 함께 스팀세차 사업 'wash&dream'의 축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체험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청소년자활작업장의 두 번째 사업으로 '스팀세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운영기관 주요소식]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후원님들의 정성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비단의빛청소년수련원_2017년 여름신앙학교 "Bible Talk"

7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비단의빛청소년수련원 여름신앙학교 "Bible Talk"를 진행하였습니다. (총8회 : 초등부 6회, 중고등부 2회) 불당 초·중·고등부 청소년과 민족교사 2,673명이 참여하였고, 우리 민족에서 살아 올직이며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을 전해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삶으로 실천하며, 하느님의 모상인 나를 발견해 가는 신앙 여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책으로만 어렵던 신경을 깨끗이하고 우리 삶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동반자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수청소년수련원_YOLOHA

8월 18일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동아리 '연동'의 기획활동 'YOLOHA'를 진행하였습니다. 'YOLOHA'는 청소년들이 주제가 되어 기획부터 홍보·운영까지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48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이 게 다양한 체험 및 공연관련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석양과 함께 특설에서 이뤄진 청소년동아리 공연은 'YOLOHA' 축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자지기능력 향상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협상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흥시청소년수련원_전국 최대 청소년동아리축제 '제3회 시흥시청소년동아리축제'

10월 28일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원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내 청소년동아리와 지역사회미 소통·교류·참여의장을 마련하고자 시흥시 대회장 ABC행복마을 타운에서 제3회 시흥시청소년동아리축제 '봄, 바라는대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동아리축제는 2,000여 동아리 약 3,5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였으며, 행사장을 방문한 관객 모방!민 병이 현자리에 모여 전국 최대 동아리축제의 규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진로고교재단_대외협력사업 '지구별 여행학교' 진행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기이티스, 하나투어 문화재단과 함께 대외협력사업 '지구별 여행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시 내 중학교 1~2학년 청소년 16명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진로탐색프로그램(3박4일)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다채롭고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꿈꾸는 별★세계 속으로 go!!!

2017.07.22. ~ 07.31 / 9박 10일 / 필리핀 바기오시



7월 23일

필리핀에 도착하여 준비한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한지 성당에서 미사 설례를 하였습니다.



7월 24일

필리핀 바기오시 츠에서 주로 청소년들을 맞이하는 환경식을 준비해주셨습니다.



7월 25일

바기오시 빈민가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 Upper Finger Day Care Center의 일부 세를 활동했습니다. 화시행진 센터와 모습이 마치며의 깊은 곳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7월 26일

필리핀 아이들을 위해 손씻기, 공예체험 교육봉사와 미니문화회, 요리, 피팅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침울했던 아이들의 모습에 더욱 열심히 몰입하였습니다.



7월 28일

한지 아동, 청소년,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물리친 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물품제작을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친절한 청소년 교육과 활동 외 함께 작업했습니다.



"후원회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해외자원봉사활동과 현지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 시민으로 한步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소개문 바기오에서의 달콤했던 한여름 밤의 풍

한우리(재단 서포터즈 7기)

봉사단 체료봉사를 마치고 한국과 돌아온 지금, 지난 9박 10일간의 필리핀 바기오 활동이 마침령 무렵인 7월 중순 느껴졌다. 면회봉사기간은 생각보다 빨라 지난 7월 가금은 언제 그만 끝나는지 그 주변들이 먼저 유타운다.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 가족 땅과 노령은 경쟁보다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봉사활동을 빠내서 문화를 배우나, 세상이 못한 일에 뛰어나면 어려나 하는 적응률이 높아 돌아온 걸을 신기하기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내가 마련 장애를 한 걸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 하나가 빠져나가기까지 철마다 한마디 짓자세로 함께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먼저 저랑 걱정들을 헤아려 하는 의문의 들판으로 빠져 즐거운 새콤을 한다. 그것 지정화했던 것처럼봉사를 하면서 마땅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은 끝들까마득한 편차한 앱을 사용하거나 토스트에서 빵을 손질했다. 바기오여 가기 전까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모임문화는 정기 모임을 준비하고, 서로 고생을 거쳐하면서 성과는 마음도 맛있지만 후회도는 칭송였다. 특히 프로그램을 보통화 대회로 편의사 대행 경과 부족해서 어려웠다. 그때에도 불구하고 30명에서 60명까지 인원에서 다른 프로그램 구체적 방법과 주제로 새롭게 하거나 고집하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점비 솔직한 칭찬해주고 싶었다. 또한 고집자 분간 배움 봉인드론 최선을 다해 깨닫나가는 모습과 미트는 남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청자연들끼리 초인간처럼 열고기 위해 노력한 풍운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광경을 지켜보니 활동들도 모두 재밌는 순간 노렸다.

많은 시간이었지만 가족의 마련 두 굽과 24시간 끌려온 표준 생활 한 달은 처음이라며 그들 표정에 걸리는 자국 그 친척들이 미소 짓고 노력한다. 특히 필리핀 환경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매우 그들의 마음을 훑어본 듯한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 매우 감사하고 걸친 것처럼이다. 이 글을 하자고 떨리 듯한 마음에 첫인상과 '일어나서 바침에서' 하는 목소리와 짙어서 어려나는 듯 차이를 찾은 체로 미소에서 사랑에서 봄주신 것들은 아침을 먹고 대조로 돌아와서 고생을 하면서 미소나를 하고 미동에 반강제 해제주는 친구들의 뻔민은 미소를 살피 허리를 사라져 멀어졌다. 한지에서는 이 생활이 당연하고 친환경 친환경 노력을 하는데 기관은 바깥도 그렇고 대장터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내년 행정에서 처음 해보는 봉사 활동들을 보다 더이라고 좋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아동들도 조건 가동적 서포터즈로 봉사단의 청소년 해외봉사단 대표라고 생각한다. 서포터즈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청환경 그 청중 동안 항상 함께 있다 보니 어느새 정도 듣고 말하고 친환경에 봄았다. 청소년 기초 환경마을 좋은 사람들과 같은 경험으로 봄을 수 있는 청자연이다.





㈜미주비엔텍 대표
김 주 열 후원회원님

이웃집 아저씨처럼 푸근한 인상으로 반겨주신 김주열 후원회원님은 그 미소처럼 따뜻한 마음을 매월 후원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나누고, 아이들이 가진 가능성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 Q1. 나를 살피면서 느끼는 말씀입니다.

말들이 다 설립하고 이제 다소나마 경제적 여유가 생겨 원 가 새롭고 의미있는 삶을 살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 아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 Q2. 특별히 청소년과 대화로 인해 느끼는 청소년에게 대한 관심이 있나요?

주변이나 TV, 라디오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손 아동청소년이나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청소년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마음 한 판에 어려움으로서 미안함과 부끄러움, 안타까움이 교차하였습니다. 저의 작은 후원이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 Q3. 후원회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2000년 초반 '함께하는 사람법'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의 권유로 후원에 등장하게 되었고 TV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 '초록우산'과 같은 후원방송을 접하게 되면서 저도 적거나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국가가 구축해놓은 사회적 민모라를 통해 미숙이 발생한다면 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또 다른 이들마 성장하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된 이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나눔의 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을 거래처 대표님들에게 설명하고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에 후원을 적극 권유하여 현재 10여개 거래처에서 후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Q4. 각주로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동 1인의 후원한 만큼'

자식들이 성년이 되면서 가족이 필요한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해 기우면서 제 삶의 보람을 찾고자 했으나, 입양 후 한 아이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야한다는 심적 부담감 때문에 선뜻 실함에 풀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동 1인에 대한 장기적 후원을 통해 세 봄을 디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정신적 측면의 것들을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취업과 자립을 위한 쟈누기부'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관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기업이 신입직원에 대해 실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취업을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준비하기도 어려운 부분(기기)에 기업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아동의 직무능력개발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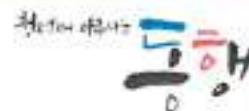
● Q5. 표지의 문구와 시사하고 싶어지는 청소년에게 대한 관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본인이 어떠한 환경(부유한 환경의 가정이거나 그렇지 않은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성장과정에서 인지능력이 형성되었을 때 부유한 환경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환경의 가정의 차이를 알게 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 자신의 처지를 뭔만해기도 합니다. 지금의 사회처럼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에게 또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보다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가 훨씬 더 강한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커다란 밀가루가 될 것이며 주변인들에게 성공한 삶을 선사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이를 이겨낼수로서 얻을 수 있는 강한 힘을 생각하여 잘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처럼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원회원 안내

01 청소년을 위해 신청해주신 후원금이 잘 출금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경기후원(CMS)의 경우 자동이체 일자에 임박한 경우 제출금 시도(2회)가 되며, 6개월 이상 제출금이 실패되면 후원 종결로 간주하오니 자동이체 일자에 맞춰 확인 부탁드립니다.

02 후원회원님의 소중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후원회원님께 저희 계단의 소식지(면 2회)와 부활대축일과 성령대축일에 이사장 주교님의 메시지가 담긴 축하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경제정보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단으로 즉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방법

01 경기후원_후원회원님의 은행계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이 자동이체 되는 방법입니다.



서면신청



온라인신청



유선신청

후원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 사무처에 제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www.yism.or.kr)
접속 후 우측 상단의 후원참여
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재단 사무처(032-766-7942)로
연락주세요. 담당자가 전화하게
후원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02 일시후원_후원회원님께서 직접 재단의 후원금계좌로 입금해주시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신청]>재단 후원금계좌로 이체>입금 후 확인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❶ 신한 100-024-226501 ❷ 국민 651001-01-292719 ❸ 농협 147-01-214064 ❹ 우리 1005-001-494596

03 기타후원_기업 / 단체 / 물품 / 새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는 후원회원님은
언제든 재단으로 연락주세요.(032-766-7942)

~~ 청소년이 기쁜 가능성에 후원해주세요. ~~

후원금 사용안내

보내주신 후원회원님의 소중한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 준하여 아동·청소년의
육성사업, 구호 및 장학사업, 해외자선사업 등에 사용하며, 성실히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 공시(npinfo.hometax.go.kr), 공연회계사 세무사 세무법인, 주무관청 감사 지도집합 등

월	기부금	보조금	총액
1~6월	259,175,195	보조금증사업비 179,806,798 / 운영비 1,076,834	439,806,632
7월	47,303,615	보조금증사업비 42,389,480 / 운영비 223,212	42,812,662
8월	40,260,060	보조금증사업비 16,420,464 / 운영비 223,408	16,643,962
9월	39,752,680	보조금증사업비 20,203,570 / 운영비 882,662	30,235,232
10월	42,502,090	보조금증사업비 36,984,800 / 운영비 223,346	37,210,206
11월	42,038,079	보조금증사업비 14,853,050 / 운영비 228,558	16,082,108
12월	347,331,261	보조금증사업비 24,200,000 / 운영비 228,558	30,235,232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01 발급안내_재단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는 후원회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 2017년 후원 내역이 있는 후원회원님

발급시기 : 2018년 1월 10일 전후

발급기준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부내역

발급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확인 및 발급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기존의 기부금영수증 일을 주면 발송이 어렵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서는 재단 사무처로 연락해주세요.

02 영수증 관련 문의_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문의에 대해 안내합니다.

영의를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영의를 변경해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경작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신청 시 등록한 후원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하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영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불가능한 경우 부탁드립니다.

(2017년 총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는 배우자, 직계비속, 칙계촌속 및 형제자매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에 기부한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재단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 공제 (3,000만 원 초과분은 25%)

- 범인(기금) 후원회원의 경우 소득의 10% 손비산정

연말정산을 위해 기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제출 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전화
주시면 맥스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드립니다.

